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왕조는 관학(官學)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私學)이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관학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 관학으로부터 인재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들을 관료로 발탁하였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학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대에 걸쳐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경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교육 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계 유형원은 관학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에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이숙(里塾)을 거쳐 서울에서는 방상(坊床)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四學)에서 3년, 중학(中學)에서 다시 1년을, 지방에서는 향상(鄕床)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읍학(邑學)에서 3년, 영학(營學)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進士院)에 들어가

고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7~9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 공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고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유형원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형원은 중국의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토지 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여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 준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해당 토지는 다시 국유화되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형원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것은 사(士), 농(農), 상(商)간에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유형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에 건의되었지만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정치 제도에 반영하려 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조정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향교와 서원에서 인재를 주로 발탁하기 시작했다.
 - ② 과거제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거제가 제시되었다.

- ③ 유형원은 사학을 활성화해 국가에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 ④ 유형원은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선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⑤ 유형원의 토지 개혁안은 조선 후기에 돼서야 실현되었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2. 윗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사원에서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검증한 것은 유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중요시했기 때문이겠군
- ② 유형원은 학제의 개편을 통해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겠군.
- ③ 각 고을에 이숙을 두고 서울의 방상과 지방의 향상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올바른 학문 풍토를 통해 전국 각지가 교화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군.
- ④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특정 지역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겠군.
- ⑤ 15세가 넘으면 사학(四學)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이나 영학에서 1년을 수학한 뒤 태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겠군

3. 윗글의 '공거제(㉠)와 <보기>의 '낭천제(㉡)'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낭천제는 조선 시대 천거제의 일환으로 운영된 제도로,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을 6품 이하의 관직에 천거하는 제도이다. 낭천제가 제안된 가장 큰 원인은 고위 관료의 자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음서제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형식의 시험인 취재(取才)를 치러 인격과 함께 학문적 자질을 심사받아야 했지만 취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 ① ㉠에서는 모든 단계의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만 7~9품직에 임명될 수 있었겠군.
- ② ㉡은 관료를 일정한 형식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안된 것이로군.
- ③ ㉠과 ㉡ 모두 기존의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군.
- ④ ㉠에 비해 ㉡은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로군
- ⑤ ㉠에 비해 ㉡은 관료 선발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었겠군

[4~6] 다음 글을 일독 물음에 답하시오.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정신과학과 자연 과학을 구분하였다.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이며, 자연 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설명이다. 그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가령,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표상이다. 그러나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고,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에 해당한다.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므로,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既知)의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도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대상의 독특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다. 직관은 지적 공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고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직관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part)들이 아니라, 인위적 요소(element)들이기 때문이다.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베르그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반면,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실증 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실재(reality)를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즉 형이상학은 실재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실재에 대해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실재 안에 위치하고,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재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실증 과학의 영역에서는 대상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없다.
- ② 인물들 간의 비교를 통해 인물의 고유한 특징을 알 수 있다.
- ③ 실증주의에서 참된 지식으로 분류하는 것들은 절대적 지식이다.
- ④ 베르그송은 분석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많은 대상의 유사성을 추출해 원래의 대상을 복원할 수 있다

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나가는 실증 과학의 방법이다.
- ② ㉠는 사물의 외부에서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본질에 이를 수 없다.
- ③ ㉠는 사물을 다른 대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식하지만, ㉡는 사물을 특정 관점이나 상징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 ④ ㉡는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에 이르기 위해 대상의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형이상학의 방법이다.
- ⑤ ㉠와 달리 ㉡는 부호적인 표현이나 재현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과의 지적 공감이다.

6.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예술가는 P 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원의 탑을 소묘하였다.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원 건물은 경내와 주위, 그리고 P 도시의 시가 전체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탑을 소묘하기 위해 우선 주변과 탑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한다. 탑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 관찰한다. 즉 그는 실재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하여 외적이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하였다. 예술가는 사원의 탑 외에도 P 도시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묘를 했고, 각 그림들의 오른쪽 밑에 ‘P 도시’라고 메모했다.

- ① 예술가는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 ②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 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 ③ 예술가는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속에 P도시의 특성을 함축하였다.
- ④ ‘P도시’라는 메모가 적힌 각 그림들을 연결시켜 감상한다고 해도 P 도시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P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⑤ 탑의 음영에 집중한 예술가의 소묘는 여러 각도에서 그린 것들을 결합할지라도 탑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준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난연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 의미론이 있다.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지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지 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

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르면 정신 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일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이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과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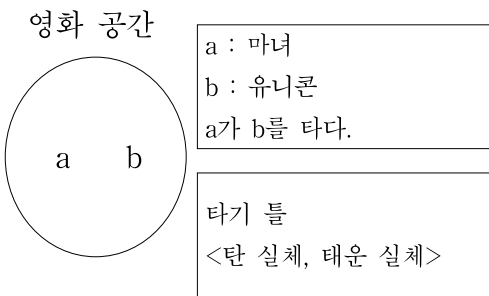
우선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 주는 언어 단위를 말하는데,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오늘'은 시간 공간, '학교에서', '집에서'는 현실 공간이다.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구 등으로,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고유 명사, '그', '이것'과 같은 대명사가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다. 즉 정신 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술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인 관계도 처리한다.

예를들어 '영화에서'라는 는 발화를 정신 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 공간은 공간 구축소

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정신 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 공간에 '영화 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되어 정신 공간에 도입된다.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한다.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에 '타기 틀'이라고 별도로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탄 실체와 태운 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탄 실체, 태운 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유니콘의 특성 : 사납다.'라는 특성도 병기해 주어야 한다.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 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 하는데,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이때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이다.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



<그림>

들은 서로 연결된다. 포코니에는 담화내에서 이러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였다.'라는 담화를 가정해 보자. 첫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배경지식에 의한다면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실 두 발화를 각각 떼어 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된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다고 보면 발화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되어 두 번째 발화와 연결 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 공간의 경우 정신 공간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각 정신 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그'에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윗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포코니에는 담화 상황에서 머릿속에 구성되는 일시적인 개념적 영역을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였군.
- ② 정신 공간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군.
- ③ 포코니에의 말에 의하면 명시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저 공간이 될 수 없겠군.
- ④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가상 공간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것도 있군.
- ⑤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공간이 확장되려면 연결자의 존재가 필수적이겠군.

8.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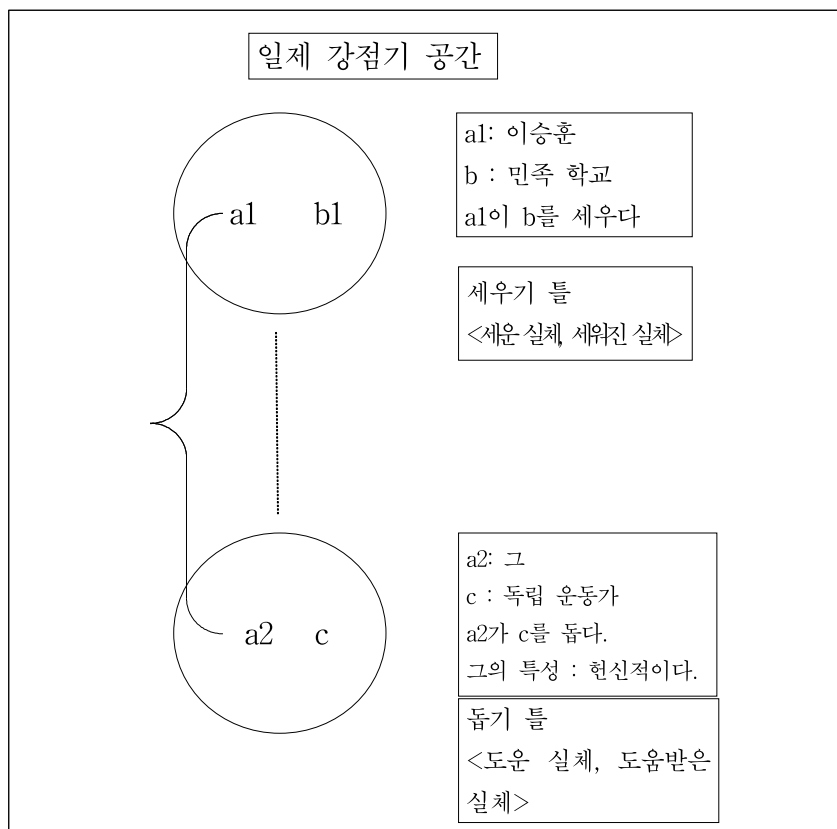
<보기>

선생님: 다음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담화로 가정할 때, 포코니에의 '정신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이 담화를 분석해 볼까요? 두 발화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발화라고 가정합니다.

"어제 허약한 오빠가 집에서 쓰러졌다. 그는 오늘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다."

- ① '만났다'는 '그'와 '의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허약한'은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오빠'에게 부여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명사 '오빠'와, 대명사 '그'는 모두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④ '집에서'와, '병원에서'는 현실 공간에 해당하고, '어제', '오늘'은 시간 공간에 해당합니다.
- ⑤ '오빠'와 '그'는 연결자가 되어 동일한 정신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9. <보기>는 어떤 담화를 '정신 공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이 담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승훈이 일제 강점기 때 학교에 헌신하다. 그가 독립 운동가를 돕다.
- ② 이승훈이 헌신적인 민족 학교를 세우다. 그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를 돕다.
- ③ 일제 강점기 때 이승훈이 민족 학교를 세우다. 헌신적인 그가 독립운동가를 돕다.
- ④ 일제 강점기 때 이승훈이 독립운동가를 돕다. 그가 민족 학교를 세우는 데 헌신하다.
- ⑤ 민족 학교를 세운 것이 그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이승훈이 독립운동가를 돕고 헌신하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를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라는 랑케의 말만큼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랑케는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 아니라, 젊은 학자들을 국가 문서 보관소로 보내어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이었다. 그는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료(史料)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역사가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의 확정에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 소거'를 통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① 칭송을 받아 왔다.

하지만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법을 동원한 사료 검증이라는 전통이 성숙되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이미 문헌 비판의 전통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②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의 교육적 이상에 따라 ③ 발족된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 기여한 점 등이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사회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가들이 랑케 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 사학'이라는 말을 성립할 수도 없고 오해만 ④ 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사료의 실증은 르네상스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 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⑦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⑧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랑케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랑케 사학, 그리고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역사 서술이 자연 과학과 달리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랑케의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 서술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랑케의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아시아 역사학계가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 사학이라 일컬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른 것도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랑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였다. 랑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의적으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만 부각하여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 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랑케는 베를린 대학에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정착시키고 역사 전문가들을 길러 내었다.
- ②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근대 역사학의 기반을 다지는 데 랑케의 연구 방법론이 영향을 끼쳤다.
- ③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전통은 랑케가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다.
- ④ 랑케 사학에 대한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해석과 가치 부여에는 수용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 ⑤ 역사주의적 역사학은 랑케로 하여금 경험적 귀납 논리야말로 역사가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11. <보기 1>의 관점에서 윗글의 '랑케'를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사료는 과거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윤색되거나 선택되어 잔존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과거 당시 시점에서 볼 때 과거는 실존적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는 관념적일 뿐이다. 역사가는 한정된 사료를 매개로 과거를 자신의 사고 속으로 끌고 와서 사건을 재연하고, 역사적 사건을 자기의 경험처럼 느끼는 추체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를 시도한다. 또 사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는 어떠한 정화의 행위를 하든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으며, 시간·장소·환경·이해관계·편협심·교양의 산물'이라는 비어드의 말이나, '모든 역사는 '현재사'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크로체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기 2>

- ㄱ. 모든 역사는 현재사의 성격을 띠므로, '과거를 평가'하려 했던 랑케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ㄴ. 현존하는 사료는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랑케의 생각처럼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기는 어렵다.
- ㄷ. 역사가는 추체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므로, 역사가가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고 본 랑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ㄹ. 역사가의 정화 행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랑케가 주장한 '자아 소거'가 완벽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객관적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 ② ㉠과 달리 ㉡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시한다.
- ③ ㉠과 달리 ㉡은 역사가가 인간 세계의 의미를 통찰하는 지식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④ ㉠과 달리 ㉡은 일본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 ⑤ ㉠과 ㉡ 모두 각각의 사료가 역사 발전 방향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라고 본다.

13. 글쓴이가 ㉠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 ② “사료의 검증은 역사가의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 ③ “자연의 역사는 신의 작품이므로 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유의 역사는 인간의 작품이므로 악으로부터 시작한다.
- ④ “과거의 다종다양한 시대가 역사가의 현재에 의해 취급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 서술의 연속성은 실현될 수 없다.”
- ⑤ “역사의 효능은 그 관련된 정보의 풍부함 보다도 그 확실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성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칭찬하여 일컬음.
- ② ㉡ :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 ③ ㉢ :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을 시작함
- ④ ㉣ : 걸으로 다 드러내어 보임.
- ⑤ ㉤ :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즉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가령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곧 A 상태의 책상이 있고, 잠시 후 B 상태의 책상이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

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킬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을 가리키는 낱말 대신 '한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여우 한 마리, 한 마리를 가리키는 낱말 대신 '여우'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그것은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 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고유 명사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를 위한 낱말이 무한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모든 개별적 사물에 이름을 붙여 쓰는 일이 비경제적이지 않다면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 ③ 개별적 사물에 붙은 이름 대신에 집단에 붙은 이름에 주목하면 개별적 사물이 서로 같지 않음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 ④ 개별적 사물들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점이 있을 때도 있으므로 유사점을 지닌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도 필요하다.
- ⑤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다르지만 사람들끼리 유사점이 있으므로 '서울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16. '헤라클레이토스'의 시각에서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강을 가리킬 낱말이 없기 때문에
- ② 같은 강이지만 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③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실제로 같지 않기 때문에
- ④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의 강에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 ⑤ 연속적인 강의 상태를 가리킬 낱말이 무한히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17.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나운 개를 본 다음에 개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 ② 몸에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만든 약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잘하는 축구 선수들만 모아 놓은 팀은 축구를 언제나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학력 평가에서 1등을 한 학교에 다니는 어떤 고등학생을 보고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버스가 승용차보다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버스 전체가 승용차 전체보다 연료를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18. 문맥상 ㉢이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언어는 변하지 않는다.
- ② 언어는 무한히 창조할 수 있지만 세상의 사물은 유한하다.
- ③ 서로 다른 것은 표현할 수 있지만 유사한 것은 표현할 수 없다.
- ④ 사물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언어는 완전히 똑같을 수 있다.
- 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플라톤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形相)이 존재하며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은 그 형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①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동일시의 오류를 저지르게 한다고 보겠군
- ③ 플라톤의 형상은 강은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 ④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에 해당하겠군
- ⑤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들이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손가락이 베여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직접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베어서 아파할 때는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의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의 사실에서 그의 고통을 추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앎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인식적 회의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 추론이 정당화되느냐는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유비 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유비 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

이 가지고 있는 ㉔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하는 논증이다.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에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리라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비 논증은 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연성도 약하다. ㉕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이 유비 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 곧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을 열어 보고 책이 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나머지 상자들도 똑같이 생겼으니 모두 책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㉖매우 빈약한 논증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도 이와 같다. 지금까지 해가 떠 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㉗수 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유비 논증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인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한다. 인식적 회의론자들이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이다. 이것을 '유아론(唯我論)'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란 걸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걸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리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 활동을 걸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㉘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을 견지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철학자들이 많다. 현대 신경 과학의 발달로 복잡한 정신 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20.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 ㄴ.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 ㄷ.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 ㄹ.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 작용으로 알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
- ② 행동주의자이면서 유아론자일 수 없다.
- ③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행동주의자와 동일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㉑~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 | | | | |
|---|--------|-------|--------|
| | ㉑ | ㉒ | ㉓ |
| ① | 마음 | 나 | 신체나 행동 |
| ② | 신체나 행동 | 나 | 마음 |
| ③ | 신체나 행동 | 다른 사람 | 마음 |
| ④ | 마음 | 다른 사람 | 신체나 행동 |
| ⑤ | 마음 | 다른 사람 | 나 |

23. ㉠~㉣의 예를 든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 :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찌푸려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 ② ㉡ :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독서 모임 회원들은 차분한 성격이었으므로 오늘 만난 독서 모임 회원도 차분한 성격이라 예측한다.
- ③ ㉢ : 휴대 전화 한 대를 분해해 보고 같은 모델의 다른 휴대 전화도 구조가 똑같으리라 예측한다.
- ④ ㉣ : 바다에서 조개를 많이 잡았는데 그중 하나에 진주가 들어 있으니 다른 조개들에도 진주가 들어 있으리라 예측한다.
- ⑤ ㉤ : 아프다는 것은 손가락에서 피가 나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좀비는 겉으로 보기에 시체처럼 창백하고 무기력하며 맞아도 전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사람과 쉽게 구분된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닌 사람과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이다. 이를 ‘철학적 좀비’라고 부른다.

- ① 행동주의자는 좀비가 아닌 사람도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
- ②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 ③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
- ④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것이 곧 철학적 좀비이겠군.
- ⑤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비 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神命論)'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과,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에우튀프론'에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앞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 견해,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B 견해라고 해보자. A 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편 B 견해는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 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다.

신명론이 B 견해를 채택한다고 해 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 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결국 신명론은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2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 ②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판이 당시 그리스 신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 ④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플라톤은 무신론자이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⑤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26. ㉠데레마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비도덕적이거나 신이 보기에 우리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다.
- ②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
- ③ 신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다.
- ④ 신이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거나 우리의 실행이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신이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거나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신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

27. ㉡과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과 달리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③ ㉡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 ④ ㉡과 ㉢ 모두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8. 윗글에 제시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②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것도 의심해야 하지 않는가?
- ③ 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④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 ⑤ 신은 심판관으로서 상과 벌을 주지만 일일이 명령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체포하자, '이 사람'은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그 사람을 해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 ①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못 알고 있군
- ②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③ '이 사람'의 행동은, 만약 신명론이 옳다면, 도덕적인 것이 되겠군
- ④ '이 사람'은 설령 남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찾더라도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겠군
- ⑤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공포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겠군

정답

1	2	17	1	
2	4	18	5	
3	4	19	3	
4	1	20	3	
5	4	21	5	
6	3	22	2	
7	3	23	2	
8	5	24	3	
9	3	25	1	
10	5	26	2	
11	4	27	4	
12	2	28	3	
13	2	29		
14	4			
15	2			
16	3			